

정승우가 만난 예술계 파워리더 38 | 김아영 현대미술가 & 미디어 아티스트

예술과 기술을 넘나드는 스토리텔러

전통 기법과 혁신 기술을 융합하여 시공간을 넘나드는 김아영 작가의 작품에는 심오함과 풍자가 동시에 담겨 있다. 김 작가는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복잡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예술과 기술 사이의 새로운 대화를 촉진하는 연결자로서 예술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아영 작가를 만났다. 정소나 기자 jung.sona@joongang.co.kr _ 사진 최영재 기자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나 봐요. ‘우주의 기운이 따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5년이 넘도록 늘 똑 같이 작업해왔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은 일들이 웬만 폭격하듯 생겨서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올해 가장 핫한 작가를 한 사람만 꼽으라면 단연 김아영 작가다. 지난 3월 세계적인 미디어 예술상인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한국인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그를 조명하는 전시가 잇달아 열린다. 현재 독일 베를린 소재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이며, 5월에는 런던 테이트 모던의 25주년 기념 소장품전에 참여한다. 11월에는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 PS1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김아영 작가는 국민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런던 커뮤니케이션대학에서 현대사진을 전공하고 첼시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LG 구겐하임 어워드에 앞서 2023년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어워드인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에서 수여하는 최고상인 골든 니카상(Golden Nica)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영국 테이트 모던, 메츠 Frac 로렌스 프랑스 지역현대미술컬렉션,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샌프란시스코 카디스트 재단, 서호주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지난 4월 16일, 유중아트센터에서 정승우 이사장이 김아영 작가를 만났다.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중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 작가에게 작품 제작 과정에서 작품의 메시지에 담긴 심오한 철학까지, 깊이 있는 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현재 한국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현대미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역사, 시대, 지정학 등 불가항력적 조건들에 휩싸여 나부끼는 주체들이나, 주어진 노선을 탈주하고 비껴 나가는 존재와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작업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비디오게임, 시뮬레이션, 조각, 사운드 픽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 전시, 퍼포먼스, 공연, 출판의 형태로 작품을 선보인다.

시각디자인, 현대사진, 순수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특별히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모션 그래픽 디자인으로 꽤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일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짓누르지 못하고 결국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현대사진을 공부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현대미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순수미술을 공부했다. 사진 작품으로 현대미술가로서 활동하면서 전시를 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사진에는 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영상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디자이너 시절에는 모션 그래픽의 영역에서 이미지를 다뤘다면, 영국에서는 이야기를 짓고 구조화하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픽션을 만들면서 영상 미디어가 내게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더 큰 범주에서는 현대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소감이 궁금하다.

2025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최초의 한국인 수상자로 선정된 김아영 작가. 요즘 가장 핫한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들이 발표될 때마다 수십 년을 오직 작품 활동에 바쳐온 대가들에 대한 인정이자 찬사라고 생각했다. 모두 존경하는 작가이지만, 특히 2회 수상자인 슈리칭(Shu Lea Cheang)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대가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알고 있던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한창 활동 중인 내가 받게 되어 무척 고무적이었다. 내가 다루는 기술의 영역은 미래적이고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근대 이전에 소멸된 기술도 모두 포함한다. 이를테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고대 사람들이 행성의 운행을 관찰했던 기술을 포함하는 등 그 폭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심사위원들이 이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이해하고, 인정해주셨기에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지난 2023년에는 ‘미디어아트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리는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수여하는 최고상인 ‘골든 니카’를 한국인 최초로 받았는데.

영상 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구’를 만들고 나서 국제 심사위원 중 한 분에게 출품 추천을 받고 지원했다.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는 뉴미디어 아트와 아트 앤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저명한 상이다. 기존 수상작 중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이 강조된 작품이 많았기에 단채널 영상으로 제작한 내 작품이 수상하리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덜컥 ‘뉴 애니메이션 아트’ 부문에서 최고상이자 가장 중요한 골든 니카(Golden Nica)라는 상을 받게 되었다. 기술의 새로움보다 예술적 실험에 방점을 둔

정승우 이사장과 김아영 작가가 동시대 미디어아트 트렌드부터 김 작가의 심오한 작품 세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수상을 계기로 그간 갖고 있던 현대미술에서의 예술과 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조하고 각성할 수 있었다.

올해는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다시 한번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 열리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다녀왔다. ‘이제 정말 현대미술과 아트 테크놀로지계가 결합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내 작품이 예술과 기술 사이의 단단한 장벽을 무너뜨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한국 근현대사, 지정학, 초국적 이동 등 역사적 사실과 동시대적인 이슈를 방대한 리서치를 거쳐 복합적인 내러티브로 재구성한 깊이 있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철학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인가.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워낙 좋아했었고, 혼자 공상하는 것도 즐겼다. 2000년대 중반,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현대 미학의 이론과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의 최첨병이었던 영국에서 모더니티를 다루는 방식에 큰 자극을 받고 한국의 모더니티를 돌아보게 되었다.

“예술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 작가로서 늘 보람을 느낀다.”

영국에서는 자국의 제국주의 역사나 식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학문화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또 그것을 풍부한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한국의 모더니티는 학문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야 비로소 20세기 초중반 혼돈의 한국 근대사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 영향으로 2010년 초부터 중반까지 진행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세계사와 한국 근대사가 교차하는 미시적인 지점들을 돌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19세기 말 개항기에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했던 역사적 사건을 소환해 영상 작업으로 재구성하기도 했다. 또 영국에서 고급 사교 문화로 시작된 경마 산업이 국내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뒤틀리고 누락된 비극을 조명하며 한국 근대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등 주어진 역사를 새롭게 사유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덧대는 방식으로 픽션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비롯해 ‘석유’는 작가님의 몇몇 이전 작품에서 주요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는 6월 1일까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플롯, 블롭, 플롭 (Plot, Blop, Plop)’도 석유를 매개 삼아 10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제페트, 그 공중정원에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셸(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이라는 연작의 연장선상에 있다.

석유는 근대주의를 가능하게 한 권력이고 물리적인 이동과 속도의 에너지원이자 지정학적 분쟁 요소, 지질과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1970~80년대 한국 근대화를 견인했던 건설업체들의 중동 진출 시기에 작가의 아버지도 건설회사 엔지니어로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일하셨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 갔던 배경에는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 오일머니로 인한 중동의 건설 붐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아버지 회사에서 건설한 사우디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였던 알 마터 주택단지가 ‘쿠웨이트 아파트’가 된 데는 결프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결국 석유가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세기 내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매개했던 석유라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어떻게 혼돈을 조장했는지 개인사에서 출발해 석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까지 씨실과 날실로 직조하면서 굉장히 내밀한 픽션이자 다큐멘터리 같은 고백적인 영상을 만들 고자 했다.

전반적인 작업 과정이 궁금하다.

전체 작업 과정에서 리서치와 작업 구상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편이다.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소재가 있으면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리서치부터 시작한다.

대표작인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주문하던 경험에서 출발했다. 음식 봉투를 문 앞에 두고 쏘살같이 사라지는 배달 라이더들의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상황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여성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바이크 뒷좌석에 앉아 함께 배달 체험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리서치와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 리서치까지 단계적인 경험을 거치면 스토리가 몽게몽게 떠오르는데, 이 스토리들을 스크립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완성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스태프들과 함께 시각화를 위한 회의를 거쳐 함께 작품을 만들어나간다.

작가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예술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 늘 보람을 느낀다. 작가가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결국 보편성과 맞닿는 것 같다. “좋은 체력을 유지하면서 가장 깊고 남루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과 독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작업이 나온다”라고 작가의 자세를 언급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에 공감하며 즐겨 떠올린 한다.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2008년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했던 순간이 특히 힘들었다. 또 늘 나 자신의 한계를 갱신하고 도전하며 함께 작업하는 많은 사람과 가장 좋은 결과물을 공유하고 싶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다.

과거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해달라.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2011년 베를린 쿤스트러

하우스 베타니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15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팔레트 도쿄에서 1년 동안 레지던시를 했다. 그해 베니스 비엔날레, 이듬해에 팔레트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프로젝트로는 2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베를린의 국립현대미술관인 함부르거 바노프라는 미술관에서 〈Many Worlds Over〉를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전임 큐레이터 노암 시겔(Noam Segal) 박사님과 함께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 자격으로 관객에게 직접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퍼블릭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 아티스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충분한 사유의 시간을 갖길 권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다이빙해 바닥을 치고,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와 싸우면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언어와 미학에 사람들은 공감하고 감동하게 된다. 아무리 미디어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가상 세계가 횡행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유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F**



정 승 우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법학 석사, 법학 박사) 졸업 후 2011년 공익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과 북함문화공간인 유중아트센터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미디어아트 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산: 인버스(Delivery Dancer’s Arc: Inverse)’(2024)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전시된 모습.
2 김아영 작가의 대표작인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 스틸 이미지. 미래 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여성 배달 기사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세계관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